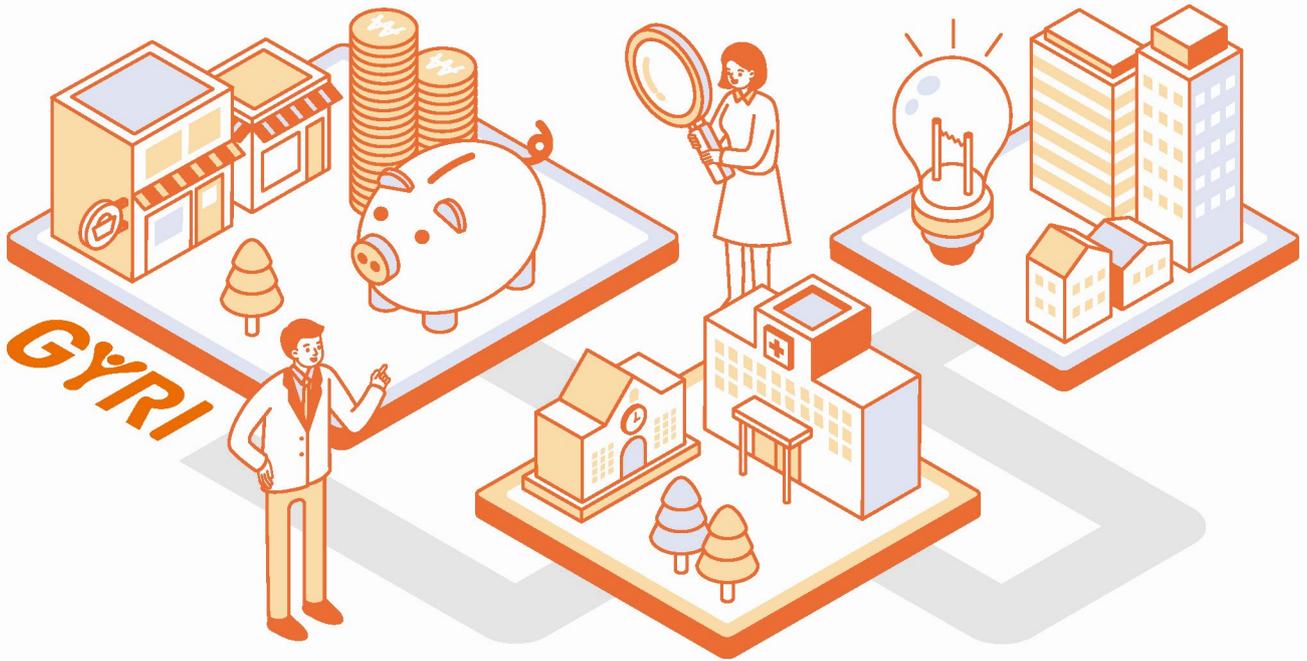


# 이슈 Issue Brief 브리프

# 05

## 국내 지역학 현황과 고양학 발전방안



**발행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인** 정원호  
**발행기관**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 www.gyri.re.kr.

**연구책임자**  
**문정화**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자**  
**김은진**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위촉연구원



### Summary | 요약

- 01 고양시 인구는 고양군이었던 1990년 24만이었으나, 2021년 현재 107만 9천 명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 외부인구의 유입이 많아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지난 시절에 대한 반추와 분석을 통해 '고양시'를 제대로 보고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양학'이 활성화되어야 함
- 02 이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고양학의 연구 동향, 고양학의 필요성, 주요 지역학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양학과 고양학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03 고양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  
 고양학센터는 센터의 정규조직화를 통해 인력, 예산, 시설 등에서 고양학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시청, 시의회, 문화원, 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또한 지역사 연구 및 미래 지향 연구, 고양학 기록화 사업 및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고양학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0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역학은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복원하고 기록하여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정주공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거와 기제를 마련해 줌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와 도시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성격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지역학 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고양학센터도 2021년 3월 개소를 하였음
- 고양시 인구는 고양군이었던 1990년 24만이었으나, 2021년 현재 107만 9천 명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 특히 외부인구의 유입이 많아 도시 정체성 확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2022년 1월 고양특례시 출범과 함께 도시 특성에 대한 자리매김과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고양의 지난 시절에 대한 반추와 분석을 통해 ‘고양’을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양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타 지역의 지역학 연구 동향, 고양학 연구 동향, 그리고 주요 지역학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고양학 및 고양학센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2

**:지역학의 개념과 연구 동향**

**• 지역학 개념**

○ 지역학이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동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또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

**• 타 지역 지역학 연구 동향**

지역학	주요내용
강릉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논문: 강릉학의 연구 동향 및 지식 구조 탐색 -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연준모(2019)</li> <li>분석논문대상: ~2019년 연구 총 474편</li> <li>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지역학으로서 강릉학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하였음</li> <li>- 연구의 양적 측면에서 지역의 규모에 비해 다른 지역학 연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풍부</li> <li>- 1966년 강릉 관련 연구가 처음 등장한 이래 편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 연구 꾸준히 증가</li> <li>- 인문학(37.6%) 사회과학(19.8%), 자연과학(15.4%)이 연구의 중심이며 공학(7.8%), 의학(5.5%) 예술체육학(5.7%)은 저조</li> <li>- 지역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li> </ul> </li> </ul>
강원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논문: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오영교(2019)</li> <li>분석논문대상: 1970~2016년 연구 총 2,741편</li> <li>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차원에서 강원도 정체성 확립 및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및 인프라 지원사업 적극적 추진하고 있으며 18개 시군 단위 대학연구소, 언론, 문화원, 재단 통해 연구사업 추진</li> <li>- 강원을 주제로 한 학술지가 다수 있으며, 그 중 3개는 KCI 등재지급 학술지</li> <li>- 강원학 연구는 지역사연구(17.9%), 지역경제연구(17.5%), 지역사회연구(10%)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짐</li> <li>- 지역별로는 강원도 전체(638건), 강릉(219건), 춘천(181건), 강릉권(109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차지</li> </ul> </li> </ul>
경남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논문: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김태영 이은영(2020)</li> <li>분석논문대상: 1930~2019년 연구 총 5,915편</li> <li>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학 관련 연구기관단체는 총 35개소로 주로 대학 내 부설연구소 형태로 운영</li> <li>- 연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li> <li>- 지역사, 지리환경, 문화 등 일부 분야에 연구가 집중됨</li> <li>-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시대적 여건에 따라 1970~1990년대에는 지리환경, 사회 치중, 2000~2010년에는 지역사, 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li> <li>- 연구성과가 창원, 진주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지역과 군지역이 편차 존재</li> <li>-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많고 지역발전 전략 및 미래상 연구, 융합 등 거시적 관점과 거대 담론에 대한 성과 부족</li> </ul> </li> </ul>
군산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논문: 군산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황태욱(2017)</li> <li>분석논문대상: 1970~2015년 연구 총 685편</li> <li>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부터 연대를 거듭할수록 연구량 증가 경향</li> <li>- 2000년대는 군산 개항 100주년(1999)이라는 사회적 이슈 시기, 학문적 관심이 늘어 연구량 크게 증가</li> <li>-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사회 분야로, 소외된 학문영역과의 차이 약 10배 이상으로, 분야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li> <li>- 1970년대 이후로 군산에 관한 연구는 실증 연구보다 문헌 연구가 많음</li> <li>- 연구주제 다양화, 연구자 다변화, 신진연구자 육성,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 군산관련 연구 대중화 필요, 자료발굴 및 축적 필요</li> </ul> </li> </ul>
창원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논문: 창원 지역연구의 동향 분석, 이성호(2021)</li> <li>분석논문대상: 2010~2019년 연구 총 376편</li> <li>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사회과학과 역사중심의 인문학 등을 기반으로 연간 30편 이상의 정규논문 성과를 보이고 있음</li> <li>-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행정구역 통합이나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국가적 이슈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 연구 증가하다 이후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연구량 감소</li> <li>- 지역대학 소속의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 성과 도출</li> <li>- 행정구역 통합 이슈가 학문적 분야에서 관심 높은 이슈로 작용</li> <li>- 지역학 연구의 외부 확장 노력 필요, 연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신규 창원 지역연구 입문자 진입 기반 구축 필요</li> </ul> </li> </ul>

03

## :고양학 개념 및 연구 동향

### • 고양학의 개념

- 고양학은 고양의 지역 및 인물과 관련된 공간을 대상으로 한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종합적·학제적 연구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음

### • 고양학의 필요성

- 지역 정체성 확보
- 지역 애착 상승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 역사 편찬의 중심적 기능 수행
- 지역사회 홍보
-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응
- 미래가치 창조

### • 고양학 연구 동향

- 분석 범위

문헌 형태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대상을 깊이 있게 조사한 모든 문헌
수집 문헌의 연구 대상	고양지역과 고양시민
발표 형태	연구보고서와 단행본/도서, KCI급(등재지, 등재후보지) 게재 학술 논문, 석사·박사 학위논문 (*일반학술지, 기사형 발간물 등 제외)
시간 범위	1970년 ~ 2021년 7월
검색 키워드	고양, 일산, 덕양, 고봉, 행주
검색 플랫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립중앙도서관, 고양시정연구원
총 분석 문헌 수	1,076건

#### ○ 분석 결과

- 고양학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 고양시 시 승격 이슈로 인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함
- 문헌 중 연구보고서 형태는 2017년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후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2018년부터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 후 연구원의 인력 확충으로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연구분야) 사회과학 분야가 전체의 53.2%, 인문학 17.6, 공학 16.4%, 자연과학 6%, 의학약학 3.3%, 농수해양학 1.5%, 예술체육학 2%로 연구분야의 편향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발간형태) 연구보고서 190건, 국내학술논문 159건, 단행본 및 도서 391건, 석사학위논문 316건, 박사학위논문 20건으로 단행본 및 도서가 많이 발간됨
- (연구지역)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을 포함한 고양시 전체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 일산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덕양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약 28배 많아 지역 편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비교연구) 타 지역과 비교 연구는 1기 신도시였던 분당과 일산 간 비교연구가 반수 이상을 차지함

04

## :국내 지역학센터 운영현황

### • 지역별 지역학센터 현황

- 지역학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산하 기관, 지역대학 부설기관, 문화재단 등 지역의 산하 기관, 그 외 민간단체 운영 기관 등에서 설립함
- 민간영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역에 관한 연구 시작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들은 충북연구원이 1999년 충북학연구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학센터를 설립하였고, 이후 기초지자체 연구원들도 지역학센터를 설립함

### • 주요 지역학센터 운영현황

#### ○ 분석 대상

-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학센터 중 설립 형태를 기준으로 지자체 정책연구원 부설인 제주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대학부설인 공주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와 재단 부설인 경기학센터의 사례를 분석함

#### ○ 분석 결과

- (수행인력)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남. 설립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광범위한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나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는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인력이 15명 정도 되며, 그 외는 3인에서 7인으로 기관에 따라 인력 수가 매우 다양함
- (예산) 전담인력이 없는 부산연구원의 경우 연간 예산이 1억으로 가장 적고, 제주연구원은 16억으로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외 기관은 4~5억 정도임. 공주학연구원은 공주시 출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억 원, 총 12억 원을 지원받음
- (공간) 지역학센터는 대부분이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 (주요업무) 주요 수행업무는 지역학 연구, 아카이빙 구축, 연구지원사업,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좌, 교재제작, 발간사업 임
- (특성사업)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평양학 심포지엄 등 남북교류에 관한 지평을 확장하고 있으며, 제주학 연구센터는 제주어를 보존하고자 제주어 연구와 시민 친화적 제주어 상담실 운영, 제주어 구술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 (기관명칭) '경기학 연구센터'는 경기학 진흥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센터 명칭을 '경기학 센터'로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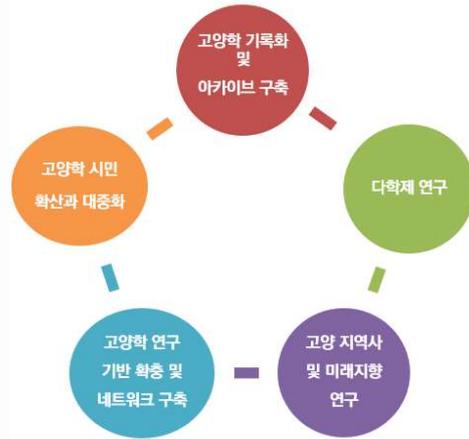
05

**:고양학과 고양학센터 발전방안**

• **고양학 연구 발전방안**

- (연구분야) 자문회의 결과, 고양학 연구의 집중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의약학 순서로 우선순위가 제시됨. 고양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학 분야와 인문학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구대상) 지금까지는 1기 신도시 지역이었던 일산지역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덕양지역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였음. 덕양지역은 제 3기 창릉신도시 지정으로 앞으로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고른 연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학제간 연구)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와 지역발전 전략 및 미래상 연구 등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

• **고양학 발전방안**



• **고양학센터 발전방안**

- 비전: 고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가치 창조
- 목표1: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정규조직화로 전임인력 및 예산확보
  -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 참여 강화
  - 신진 전문인력 양성 및 객원연구원 제도 도입
  - 고양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추진
- 목표2: 고양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 활성화
  - 고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 연구
  - 다학제, 융합형 미래지향 연구
  - 지역고유의 창조적 문화컨텐츠 개발
  - 고양학 총서 발간, 학술지발간, 연구논문지원
- 목표3: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 다양한 분야 자료 수집 및 마을조사, 구술채록
  - 시사자료 수집과 편찬
  - 고양학 자료 DB화,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 시민기록가 양성
- 목표4: 고양학 시민참여 및 향유 증진
  - 대학연계 고양학 강좌 및 '고양학 개론'서 발간
  - 초·중·고생 및 시민교육 강좌 운영
  - 시민패널제도 및 지역콘텐츠 제작 참여
  - 시민답사 프로그램, 포럼 및 세미나 운영
  - 고양학 TV 운영,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구축
  - 고양학 연구·출판, 문화사업